

David Howard 박사, Joshua-Ruth, 세션 15, 여호수아 10 기브온

© 2024 데이비드 하워드와 테드 힐데브란트

이 사람은 여호수아서부터 룯기까지를 가르치는 David Howard 박사입니다.
이것은 세션 번호 15, 여호수아 10장, 남부 캠페인입니다.

이 부분에서 우리는 여호수아 10장에 대해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의 성경을 열어 보십시오.

그리고 실제로, 앞서 언급한 것처럼 9장부터 11장까지는 가나안 왕들의 연합군이 이스라엘을 대항하여 모이는 장소로 함께 진행됩니다. 9장 1절, 10장 1절, 11장 1절 모두 그런 내용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10장과 11장도 더욱 긴밀하게 연결됩니다.

10장은 남부 왕 연합에 대항한 캠페인에 대해 설명합니다. 11장은 북부 왕들의 연합에 관한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가나안의 전투를 어떻게 다루려고 하는지 생각하고 싶다면 그들이 들어왔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리고와 아이에 먼저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서 일종의 중앙 가나안에서의 전투를 추구했고 그들은 추구했습니다. 10장에는 남방 왕들의 연합이 있고 그들은 장의 끝에서 남방 왕들을 추격한 다음 북쪽으로 가서 하솔 왕과 거기에 있는 다른 왕들의 연합에 대항했습니다. 그래서 가나안에서 이스라엘의 전투에는 일종의 삼중적인 추진력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국가의 중앙 구릉지에서, 그 다음에는 남쪽, 그 다음에는 북쪽으로 이동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여기서 보는 전체적인 큰 그림입니다. 그래서, 10장, 우리는 실제로 10장의 공격은 흥미롭고 아이러니하게도 이스라엘에 대한 공격이 아닙니다.

이에 대한 왕의 청문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1절에 보면, 예루살렘 왕 여호와 세덱이 여호수아가 아이를 함락시키고 그 성을 멸망시키고 그 일에 바쳤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보게 됩니다. 1절 중간 끝 부분에는 기브온 주민들이 이스라엘과 화친한 일도 그들 중에 있었습니다.

기브온은 왕도와 같은 큰 성임이요 아이보다 크고 그 사람들은 다 용사들임이라 그가 크게 두려워하였더라. 그래서 여호와 세덱이 왕들의 연합을 이루어 와서 4절을 보면 우리가 나를 도우며 기브온을 치자 하였느니라. 따라서 이번 공격은 이스라엘을 겨냥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중앙 산간 지방에 있는 기브온 성읍 출신의 가나안 동족을 상대로 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모두 모여서 기브온을 향하여 진을 치고 5절에서 싸웠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9장에서 이스라엘과 맺은 조약 때문에 전쟁에 말려들게 됩니다.

그래서 10장 6절에는 기브온 사람들이 길갈 진영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사람을 보내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4~5개의 동사가 함께 빠른 스타카토로 언급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당신의 종들에게서 손을 떼지 마십시오. 속히 우리에게로 올라와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도우소서.

그러니까, 뱅, 뱅, 뱅, 뱅. 본문이 쓰여진 방식을 보면 기브온 사람들이 얼마나 당황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은 이제 다섯 왕과 그들에 맞서는 그들의 민족이 하나의 도시로 이루어진 이 대규모 연합의 지배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우리가 맺은 이 조약 때문에 당신들이 우리를 도와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전쟁에 끌어들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7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백성들과 함께 길갈에서 가는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8절에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들을 너희 손에 넘겨주었다. 그들 중 한 사람도 네 앞에 설 수 없을 것이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1장에서 말씀하신 것과 같은 내용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어떤 사람도 당신을 견딜 수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갑자기 그들에게 다가옵니다.

9절에 보면 그는 길갈에서 밤새도록 행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또 다른 큰 기적을 행하십니다. 우리는 3장에서 물을 건너는 큰 기적을 보았습니다.

이 무너지며 아이 성에서 돕는 큰 기적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서에는 하나님께서 행하신 기적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대신하여 전쟁을 치르신 내용이 가득합니다. 우리는 그것이 어떻게 모델인지, 하나님께서 일을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지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다른 나라들처럼 그들의 위대한 전사나 왕을 의지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서 이를 행하셔야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그는 10절에서 다시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다시 스타카토 일련의 동사가 있는데, 그 중 약 7개가 이제 다음 두 절에 있습니다.

그래서 10절은 첫째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패닉에 빠뜨리셨다고 말합니다. 둘째, 이스라엘은 그들을 큰 타격으로 쳤습니다. 이스라엘은 벰호론에 오르는 길에서 그들을 추격하였다.

마케 다까지 그들을 쳤습니다. 11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여 벰호론 비탈로 내려갈 때에 여호와께서 친히 하늘로서 큰 우박덩이를 내리시니. 아세가에 이르기까지 그들은 죽었습니다.

그리고 칼에 죽은 이스라엘 자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이스라엘이 이긴 놀랍고도 매우 인상적인 승리입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그들을 위해 일을 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공포에 빠뜨리십니다. 10절, 그들은 기브온에서 그들을 크게 쳤던 이스라엘 자손의 손에 맡겨졌습니다. 10절, 그들을 쫓아내어 쳐죽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도망가는 동안 하나님은 우박폭풍으로 그들을 치셨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가나안 사람들은 두 가지 다른 원인으로 죽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는 이스라엘의 칼이요, 또한 우박 폭풍입니다.

그리고 우박 폭풍은 이스라엘의 칼이 치는 피해보다 더 큰 피해를 입힙니다.
그러므로 이 장에 엄청난 기적이 있다는 데는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리고
내 견해로는 이것이 이 장에서 실제로 초점을 맞추고 있는 기적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12절부터 시작되는 이 장의 다음 부분은 우리를 새로운 것으로 인도합니다.
이르되 아아 이 일이 있느니라 여호와께서 아모리 족속을 이스라엘 자손 곧
가나안 족속에게 붙이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니라. 그가 이스라엘
목전에 이르되 해가 기브온에 머물고 달은 아얄론 골짜기에 머물러 있도다

태양이 머물고 달이 그치기를 그 민족이 그 대적에게 복수할 때까지
이르렀느니라. 그리고 나는 대부분의 성경에서 이 내용이 작은 시처럼 보이도록
인쇄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부분의 현대 영어 성경은 이제 페이지에 시처럼
보이는 활자체로 나열된 시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여기에 있는 작은 시입니다. 자, 이 구절에서 실제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에 관해 많은 논쟁이 있습니다. 그 다음 절인 13절 끝부분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이 야살의 책에 기록되어 있지 아니하냐?” 해가 중천에
멈춰서 거의 하루 종일 속히 지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으므로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이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더라. 이제 이 구절을
이해하려는 시도가 많이 있으므로 여기서 그 모든 것을 다루지는 않겠습니다.
인터넷에서 볼 수도 있고, 논평을 볼 수도 있습니다.

나는 이것을 약 12페이지에 걸쳐 다양한 옵션으로 다루었다는 Joshua에 대한
논평을 썼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전통적으로 여기서
일어난 일은 과학적 관점에서 볼 때 지구가 자전을 멈추고 태양이 하늘에 멈춰
있는 것처럼 보이는 엄청난 기적이었다는 견해가 있었습니다.

달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조슈아가 전투를 완수하려면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느꼈기 때문일 것이다. 그래서 그는 하루가 더 길어지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했고 거기서 그들은 전투를 마칠 수 있었습니다.

현대에는 이를 정당화하거나 이를 증명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추가 설명이 있었습니다. 한 가지 버전이 있습니다. 19세기에 영국에서 나온 흥미로운 이야기가 있습니다. 영국 그리니치에 있는 왕립 천문대의 천문학자들이 계산을 하고 있었는데 그들은 역사상 어떤 일이 있었다는 것을 어떻게든 발견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하루가 부족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여호수아서 10장까지 추적되었습니다. 그러나 계산에 따르면 실제로는 23시간 20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40분이 빠졌네요.

그리고 나서 며칠 후 히스기야 시대에 해시계가 뒤로 돌아가고 그것이 40분을 차지한다는 것이 기억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여기에 빠진 하루가 있다는 성경 이야기에 대한 놀랍고 기적적인 성경 외의 과학적 확증으로 여겨져 왔습니다. 내 견해로는 그것이 성경 이야기를 뒷받침하려는 선의의 시도였으나 잘못된 방향이었다는 것입니다.

Google Joshua's Long Day를 검색해 보면 온갖 종류의 웹사이트가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으며 일부는 이를 지원하고 일부는 이를 폭로합니다. 그러나 같은 이야기의 또 다른 유명한 버전은 약 100년 후에 나옵니다. 1964년, 즉 60년대 초반 메릴랜드 주 그린벨트에 있는 NASA 시설의 NASA 과학자들이 미래의 우주 여행에 대한 계산을 하고 있었고 일종의 노력을 했다고 합니다. 미래와 과거의 모든 시간을 고려하십시오. 그리고 그들의 컴퓨터는 역사상 오래전부터 멈춰버렸습니다.

그리고 또 하루가 빠졌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그러다가 누군가가 조슈아의 이야기를 기억하고 성경을 갖고 와서 이것을 발견하고 다시 계산을 했고 컴퓨터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40분의 시간이 부족하여 다시 멈춰섰고, 그 후 히스기야의 이야기를 기억하고 모든 일이 잘 풀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19세기 영국 그리니치 버전과 20세기 버전에서 정확히 같은 이야기를 발견한다는 사실이 매력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인터넷에서 오랫동안 검색하면 다른 버전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나에게 그것은 정말로 매우 좋은 의도이며 많은 기독교인들은 과학이 어떻게 성경을 뒷받침하거나 증명하는 데 도움이 되는지 알아보기 위해 이것을 고수합니다.

그러나 나는 확신하지 않습니다. 제가 보기엔 그것은 계속해서 반복되는 일종의 도시 전설의 성격에 더 가까운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태양은 실제로 가만히 서 있었습니까? 세상이 돌아가는 걸 멈췄나요? 나는 그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분명히 하나님은 무엇이든 하실 수 있으며, 천문학적인 계산에 그 날이 나타나지 않는 방식으로 그 일을 하실 수 있습니다. 사실, 물리학자들과 친구들은 과거에는 어쨌든 그렇게 빠진 날을 찾을 수 없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물리학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그대로 두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기적을 일으키셨을까요? 이것이 두 번째 기적이었을까? 첫 번째 기적은 우박입니다. 두 번째는... 잘 모르겠어요. 제 생각에는 11절이 끝날 때쯤 이야기가 완성되는 것 같습니다.

전투가 완료되었습니다.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많은 적들을 죽였고 우박 폭풍도 그렇게 했습니다.

큰 기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서 세상이 그 축을 중심으로 회전하는 것을 멈추셨다고 확신하지 않습니다. 내가 기적을 믿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나는 우박폭풍에 관한 이 책을 포함하여 여호수아서에 기적이 가득하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나는 지구가 가만히 서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며 이렇게 긴 하루도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것은 제가 텍스트 기반 접근 방식으로 받아들이는 것에 더 기반을 두고 있으며 이 구절의 본질을 시적으로 진지하게 받아들이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짧은 시지만 시적이다. 그리고 해석학적으로 우리는 텍스트를 해석할 때 히브리어뿐만 아니라 어떤 언어로든 직관적으로 시를 대하는 방식은 산문으로

설명하는 방식과는 다릅니다. 시는 상상력이 풍부하고 감정이 풍부하며 비유적인 경향이 있습니다.

시는 좀 더 천국, 상상의 세계에 닿는 것 같아요. 나는 말이 실패할 때 시가 인간의 감정을 표현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것은 단지 우리를 다른 수준으로 데려갈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의 다른 곳에서 볼 수 있는 몇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출애굽기 15장에서 찾을 수 있는 훌륭한 예입니다. 따라서 성경을 꺼내서 출애굽기 15장을 펴면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은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막 나왔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홍해를 건넜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바로의 군대 등을 물리치고 큰 승리를 주셨습니다.

하지만 산문, 즉 그 사건에 대한 서술적 설명은 출애굽기 14장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출애굽기 14장을 먼저 보면 거기에서 펼쳐지는 줄거리를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에 도착하는 것을 봅니다.

파라오의 군대가 돌아옵니다. 하나님은 그들 사이에 구름을 두셨습니다. 밤새도록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바다가 열립니다. 이스라엘은 마른 땅을 건너갑니다. 파라오는 따라가려고 합니다.

바다가 그들을 덮고 그들을 패배시킵니다. 그럼 대단한 승리네요. 그 이야기는 출애굽기 14장에 나옵니다. 꽤 긴 장, 31절로 구성되어 있어 이야기의 세부 내용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성경 출애굽기 15장을 보면 처음 18구절도 역시 시나 노래입니다. 그리고 15절 1절에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이 이 노래를 여호와께 불렀다고 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노래하리라

그는 영광스럽게 승리했습니다. 말과 그 탄 자가 바다에 던져지느니라. 21절은 미리암과 여인들이 같은 노래를 불렀음을 알려준다.

주님을 노래하십시오. 그는 영광스럽게 승리했습니다. 그녀는 20절에 언급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시는 동일한 사건을 어떻게 다루고 있습니까? 저는 이 노래가 본질적으로 찬송가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감사의 노래입니다. 승리의 노래입니다.

그리고 바로의 군대에 대한 대승을 축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관점에서 이야기를 전개합니다. 자, 시의 목적, 노래의 목적은 우리에게 모든 세부 사항을 알려주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14장에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노래의 목적은 14장의 사건을 찬송가 방식으로 되새기는 것입니다. 따라서 다르게 만들어졌습니다.

거기에는 더 감정적인 언어가 있습니다. 더 비유적인 언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15장 4절을 보십시오. 바로의 병거와 군대를 바다에 던지셨습니다.

그가 택한 장교들은 홍해에 가라앉았습니다. 이미 해저에 있는데 어떻게 홍해에 가라앉을 수 있겠습니까? 아시다시피, 그들은 바다 밑바닥을 건너고 있고 홍수가 그들을 덮고 있습니다. 어떻게 가라앉을 수 있나요? 그래서 이것에 대한 일종의 비유적인 설명이 있습니다.

5절, 홍수가 그들을 덮었습니다. 그들은 돌처럼 깊은 곳으로 내려갔습니다. 당신이 이미 해저 바닥에 있다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다시 말하지만, 그것은 사건을 설명하는 시적이고 비유적인 방법인 것 같습니다.

10절, 당신의 바람이 불었습니다. 바다가 그들을 덮었습니다. 그들은 거센 물 속에 납처럼 가라앉았습니다.

같은 것. 그래서 우리는 매우 다른 그림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서 여호수아 3장에서 그들이 마른 땅으로 요단강을 건널 때 언급했던 마른 땅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마른 땅과 젖은 땅이라는 전문적인 단어 중 하나입니다. 그런 일은 14장에서 네 번 나옵니다. 이 시에서는 그런 일이 전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에는 물의 벽과 마른 해저에 대한 그림이 없습니다. 시에는 물이 홍해를 덮고 가라앉는 그림이 있습니다. 그거 다른 이벤트인가요? 내 박사 과정의 교수 중 한 명을 포함한 일부 학자들은 14장의 사건을 완전히 믿지 않고 물이 갈라지는 일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에 이르렀습니다. 그들은 배 몇 척을 발견하고 건넜습니다. 이집트인들은 배를 타고 건너려고 했습니다.

폭풍이 닥쳐 모두 침몰했습니다. 내 견해로는 내 교수가 정확히 틀렸다는 것이다. 그는 시를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고 이야기를 폐기했습니다.

해석학적으로 내 견해는 시의 내러티브 텍스트가 더 문자적이고 비유적인 시적 언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그 시점에서 그가 틀렸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시와 산문을 이해하는 방법에 대한 아름다운 테스트 사례의 한 예입니다.

이 시는 14장의 사건을 회상하는 찬송입니다. 큰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시에서 동일한 세부사항을 모두 말할 필요는 없습니다.

사사기 4장과 5장에는 이에 대한 또 다른 예가 있습니다. 그러니 그 예를 열어 보십시오. 여기의 맥락은 드보라와 바락이 백성의 지도자들이 되는 상황입니다. 드보라는 여선지자로서 결국 주요 지도자가 됩니다.

Barak은 그녀의 일종의 자회사입니다. 4장에는 산문 이야기가 나옵니다. 5장은 드보라와 바락의 노래입니다.

5장 1절, 그 날에 드보라와 아비노암의 아들 바락이 노래하였더라. 그런 다음 계속됩니다. 당신은 당신의 산문에서 그것이 내러티브임을 볼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는 시가 사건을 어떻게 다루는지, 서사를 어떻게 다루는지, 산문이 사건을 어떻게 다루는지에 대한 테스트 사례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사기 4장의 이야기는 23절과 24절에서 마무리됩니다. 일종의 평범한 이야기입니다.

나는 1960년대에 Dragnet이라는 유명한 TV 시리즈가 있다는 것을 알 만큼 나이가 들었습니다. 드래그넷은 짧은 경찰 드라마였고, 열심히 일한 프라이데이 경사가 주인공이었고, 그는 항상 30분 안에 어떤 범죄와 미스터리가 일어났든 해결하곤 했습니다. 그러나 프라이데이 경사는 범죄의 여파를 조사하면서 서명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사람들을 인터뷰하면서 사실만을 원했습니다. 그리고 서명란은 사실 그대로였습니다. 부인. 사실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사기 4장, 특히 여기의 결론을 읽을 때 그것은 나에게 그것은 일종의 역사에 대한 프라이데이 상사의 관점과 같습니다. 단지 사실입니다. 그래서 4장 23-24절을 보면 그 날에 하나님께서 가나안 왕 야빈을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굴복시키셨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손이 가나안 왕 야빈을 점점 더 압박하여 마침내 가나안 왕 야빈을 진멸하였느니라. 산문 요약입니다. 평범한 내용은 별로 드라마틱하지 않습니다.

어떤 면에서 그것은 나에게 비디오 카메라, 즉 7-11의 보안 카메라와 같습니다. 그것은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에 대한 그림을 제공하지만 감정을 얻지 못하고 행동에 실제로 참여하지 않습니다. 반면 시는 매우 다채롭고 감동적이며 창의적입니다.

이것이 5장에 이르면 보게 되는 내용입니다. 여기서 몇 가지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사사기 5장 4절을 보십시오. 여호와여 주께서 세일에서 나오시고 에돔 땅에서 행진하실 때에 땅이 진동하고 하늘이 물을 내렸고 구름도 물을 내렸습니다. 글쎄요, 우리는 4장에서 지진이나 폭풍, 그리고 그런 것들에 대해 아무것도 읽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것은 추가적인 관점이거나 아마도 비유적인 관점일 것입니다.

5절, 산들이 여호와 앞에서 진동하니 시내 산도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진동하느니라. 그래서 다시, 우리는 4장에서 찾을 수 없는 이미지를 여기에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그것을 다시 반영하고 있습니다. 20절을 보십시오.

하늘에서 별들이 싸웠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길에서 시스라와 싸웠습니다. 시스라는 4장에서 그 장군의 왕이었습니다. 4장에는 별에 대한 언급이 없습니다. 그리고 저는 직관적으로 우리가 그 구절을 읽을 때 어떤 특별한 일이 일어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야빈과 시스라를 치기 위해 특별한 감마선을 보내셨는가?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본문은 산문 설명에서 그 어떤 것도 언급하지 않습니다. 나는 직관적으로 이해한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마치 승리가 너무나 압도적인 것 같고, 마치 자연의 모든 힘이 야빈과 시스라에 대항하여 정렬된 것과 같습니다.

산들이 흔들리고, 땅이 흔들리고, 하늘이 물을 쏟아내고, 별들까지도 가나안 사람들과 싸우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나는 시스라 시대에 싸우는 별들을 찾고 있는 누군가가 20절 뒤에 숨은 과학적 추정을 찾으려고 노력하고 있는 NASA에 대한 언급을 인터넷에서 찾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와 산문을 해석하는 방법을 직관적으로 이해합니다. 그래서 그 모든 배경을 가지고 성경 자체에서 찾을 수 있기 때문에 견고한 배경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기적을 설명하려고 의외의 입장에서 접근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경 자체가 산문과 시를 해석하는 방법에 대해 우리에게 어떻게 가르치는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제 여호수아서 10장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내 생각에는 12B절에 태양이 기브온에 머물러 있고 달이 아야온 골짜기에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것은 모두 시적입니다.

그리고 13절 중간에 있는 야샤르서를 언급하면, 그 책은 사무엘상 1장에서 단 한번만 언급됩니다. 이 책은 거의 분실되지 않은 성경 외의 책입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13절의 나머지 부분도 시적이라고 주장하고 싶습니다. 지금은 대부분의 성경 번역본이 그것을 시로 인쇄하지 않지만 여러 가지 이유로 13절의 두 번째 부분도 시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말하기를, 해가 중천에 멈췄다 하고, 하루 동안이나 급히 지는 일이 없었느니라. 그것도 비유적인 언어다. 문자 그대로가 아닙니다.

이 모든 것 외에 몇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1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아모리 족속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붙이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었다고 했습니다. 나는 그가 말한 것을 볼 것입니다. 그 다음 말씀은 그가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말했다고 합니다.

여호수아가 그런 말을 했나요? 아니면 하나님이 그랬나요? 그리고 해와 달에게 말씀하신 분은 여호수아가 아니라 하나님이셨다고 믿을 만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구절에서 하나님을 주된 행위자로 봅니다. 앞 절인 10절에서 주님께서 가나안 족속을 패닉에 빠뜨리셨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는 그들을 큰 타격으로 쳤다. 11절 중간에 주님께서는 큰 우박 등을 내리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해와 달을 포함하여 자연의 모든 요소를 주관하고 계십니다.

여호수아가 그렇게 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해와 달에게 멈추라고 명령하시는 것이 훨씬 더 적절합니다. 그래서 내 생각에는 그가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말한 주제는 하나님께서 이 일을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12절에서 여호와께 말씀드렸습니다.

그는 무엇을 말했습니까? 우리에게는 그 말이 없지만, 내 생각에는 그가 “주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를 구원하소서”라고 기도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해가 멈춰 있다”고 응답하십니다. 즉, 여기서 가나안 족속을 상대로 압도적인 승리를 거둔 것입니다.

그리고 13절에 또 한 가지 말씀이 있습니다. “해가 머물고 달이 그치기를 그 나라가 그 대적에게 원수 갚을 때까지니라.” 그리스어 번역에는 이에 대한 매우 흥미로운 변형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원수들에게 보복하실 때까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는 그것이 더 나은 독서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여기서 가나안 사람들을 정복하는 동사의 주어가 되는 하나님의 끊임없는 끈을 우리에게 제공합니다. 그러므로 승리를 거두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복수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며, 해와 달에게 멈추라 명하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6절부터 11절까지의 압도적인 승리의 성격에 대해 이야기하는 시적입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 거기 12절과 13절은 6절의 전투에 대한 간략한 찬송가 반성입니다. 출애굽기 15장은 14장 전투, 사사기 5장과 사사기 4장을 회상하는 더 긴 찬송가인 것과 같은 방식으로 11장까지입니다. 그래서 저는 지구가 축을 중심으로 자전하는 것을 멈추는 큰 기적이 있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우박폭풍으로 가나안 족속을 압도하시는 큰 기적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짧고 짧은 찬송 묵상은 그것에 대해 성찰하기 위한 것입니다. 대중적인 전통적 견해는 아니지만, 나는 그것이 해석학적으로 성경의 다른 곳에서 볼 수 있는 것들에 뿌리를 두고 있다고 믿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섹션을 마무리한 다음 계속해서 장의 나머지 부분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가 말할 수 있는 또 다른 한 가지는 14절입니다. 전통적인 견해는 물론, 지구가 이런 식으로 자전을 멈춘 적이 없기 때문에 이런 날은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세계 역사상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은 이번이 단 한 번이다. 그러나 그 구절을 주의 깊게 읽어 보면, 그것이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구가 자전을 멈추고 태양이 달 위에 멈춰 있던 이후로 그런 날은 없었다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으므로 사람의 목소리를 순종하셨다고 번역할 수 있습니다. 이로써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 싸우신 동사의 순서가 끝났습니다.

그러면 그는 어떻게 사람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였습니까? 여호수아가 12절에서 말했을 때입니다. 흥미롭고도 정확한 이 말은 주님께서 사람의 음성에 순종하셨고, 앞서 우리가 알고 있듯이 하나님은 분명히 아브라함과 모세와 다른 사람들의 기도에 응답하셨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이 말씀이 나오기 전에는 여지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음성에 응답하시거나 문자 그대로 순종하신다는 이 표현이 발견되는 곳은 결코 없습니다. 따라서 여기서 요점은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그 어휘를 사용하여 문자 그대로 동일한 방식으로 따르고 순종하라는 인간의 직접적인 요청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거기에서도 주의 깊게 읽는 것은 우리가 흔히 상상하는 것과는 다른 것을 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생각해 볼 부분이 있고 이에 대한 판단은 여러분에게 맡기겠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이에 대한 추가 논의는 거의 모든 논평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내 생각에는 여호수아서의 주석에서 이를 볼 수 있는데, 거기서 나는 다른 선택 사항도 논의합니다.

그런데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함께 길갈 진영으로 돌아왔다고 합니다(15절). 여기에는 약간의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43절에서 본 장의 마지막 절, 즉 똑같은 구절을 보기 때문입니다. 여호수아는 온 이스라엘과 함께 길갈 진영으로 돌아왔다.

그럼 그 사람은 두 번이나 돌아왔나요? 아마도. 그러나 이것은 동일한 구절을 서로 다른 두 곳에서 우연히 다시 복사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42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다고 했습니다.

14절 끝부분에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해 싸우셨다고 나옵니다. 따라서 필사자가 본문을 복사한 역사에서 언젠가 이스라엘을 위해 싸운 문구를 보고 두 번 복사했거나 잘못된 위치에 삽입했을 수도 있습니다. 내 생각엔, 아마도 15절은 여기에 속하지 않을 것입니다. 아마도 이 장의 마지막 부분일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이 장의 나머지 부분에는 두 부분이 있습니다. 16절부터 28절까지는 기브온 사람들과의 전투의 여파를 보여줍니다. 기본적으로는 여호수아와 백성들이 서쪽으로, 그리고 다시 남쪽으로 적을 추격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 사람들에 대해 승리하고 다섯 왕을 멸망시킨 일종의 남쪽 청소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이스라엘에게는 놀라운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거기에 두겠습니다.

그러나 29절부터 시작하여 39절까지는 이제 좀 더 넓은 개요, 즉 남쪽에 있는 더 많은 도시에 대한 포괄적인 개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28절부터 시작하면 실제로 막게다라는 도시가 보입니다. 그리고 6개의 도시가 더 있습니다.

즉, 이름이 붙은 7개의 도시가 있습니다. 막게다(28절). 29절(립나).

31절, 라기스. 33절, 게셀. 34절, 에글론. 36절, 헤브론. 38절, 드빌. 이들은 모두 남쪽에 있는 도시들이다.

그리고 이 섹션을 보면 각 항목의 형식적인 반복과 같습니다. 각 구절마다 한두 구절만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싸웠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31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수아와 그와 함께한 온 이스라엘은 립나에서 라기스로 갔다. 그들은 그것을 붙잡고 그것에 맞서 싸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라기스를 그들의 손에 넘겨주셨습니다.

그들은 그것을 포착했습니다. 둘째 날에는 그 성 안의 모든 사람을 립나에 행한 것과 같이 칼날로 쳤더라. 그러자 33절에 보면 게셀 왕 호람이 라기스를 도우려고 올라오자 여호수아가 그와 백성을 쳤습니다.

일곱 번이나 마찬가지로입니다. 그게 우리가 아는 전부 야. 이제 40~43절이 일종의 최종 요약, 즉 40~42절입니다.

그리고 여호수아가 그 온 땅과 산지와 네겟과 평지와 경사지와 그 모든 왕을 쳤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것은 그들이 그 일곱 도시뿐만 아니라

남쪽에 있는 모든 사람에 대해 승리를 거두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7개 도시는 주요 도시를 대표하는 도시이다.

어쩌면 그것은 상징적인 숫자일 수도 있습니다. 완전함이라는 개념의 7번이죠. 하지만 나는 그들이 남부의 더 광범위한 파괴를 대표하기 위해 선택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과정은 그곳에서 완전한 파괴 중 하나였습니다.

그러면 이 장의 마지막 문단인 40절부터 43절까지를 살펴보겠습니다. 또는 구체적인 초점은 40절부터 42절이며, 정복의 성격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40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온 땅과 산지와 네겟과 평지와 경사지와 그 모든 왕을 쳤느니라. 그는 멸망에 바쳐진 한 사람도 남겨 두지 않았습니다.

멸망에 바쳐진다는 뜻의 하람(haram)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호흡이 있는 모든 것은 주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여호수아는 남쪽 끝 바네아 가데스에서부터 남서쪽 가사까지 고센 온 땅을 쳤습니다.

그것은 이집트를 지나서 아마도 북쪽 기브온까지 내려가는 길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42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이 모든 왕과 그 땅을 단번에 점령하였으니 이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또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음이니라. 그래서 하나님이 전사라는 개념이 여기서 발견됩니다.

그런데 이 사진을 보니 사람이 하나도 없는 것 같네요. 모든 시체가 있고, 숨을 쉬는 사람도 없고, 그게 전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13장부터 시작하여 이후 장들에서 13장에서 우리에게 아직 취해야 할 땅이 훨씬 더 많이 남아 있다고 말하고 있음을 발견합니다.

우리는 이전에 이러한 부족이 주민들을 자신의 영토에서 쫓아낼 수 없었다고 말하는 곳도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따라서 이 후반부에는 이러한 영토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완전히 멸절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러한 것들을 하나로 모을 수 있을까요? 다시 한 번 우리는 이것을 일종의 요약 진술로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의 전투의 모든 세부 사항을 요약하고, 여기 10장에 있는 다양한 전투를 요약하고,

기본적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완전한 승리를 주셨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나라들은 그를 두려워했고, 그들이 공격해 오면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셨고, 기본적으로 그게 전부였습니다. 그러나 문자 그대로 모든 마지막 개인은 아닙니다. 분명히 몇몇 생존자들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것은 하나님의 광대하심의 승리를 전달하려는 일종의 비유적인 포괄적 진술로 보아야 하며, 구체적인 종류의 내용은 일부가 실제로 살아남았다는 것을 발견하는 조금 후에 드러납니다..

그러나 이것은 중요한 장이다. 먼저 9장부터 기브온 조약의 시험을 보여줍니다. 이스라엘은 기브온 사람들이 공격을 받았을 때 그들에게 충실할 것이었습니까? 대답은 '그렇다'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기브온에서 우박이 쏟아지는 가운데 큰 승리를 거두게 하셨습니다. 그것에 대한 작은 찬송 묵상, 그것을 축하하고 하나님께서 실제로 여호수아의 기도, 즉 사람의 소리를 들으셨다는 것을 축하합니다(14절).

그리고 그 여파로 왕들을 사로잡았습니다(16절부터 28절). 그리고 여기에 전체 남부 캠페인, 일곱 도시, 그리고 그곳의 마지막 진술에 대한 일종의 요약 진술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장은 여러 가지 이유로 매우 인상적인 장입니다. 그 중 하나는 문자 그대로 이해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기적을 믿지 않기 때문이 아니라 그것이 바로 그런 곳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라는 점을 이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텍스트 증거가 우리를 이끌 것입니다.

이 사람은 여호수아서부터 룯기까지를 가르치는 David Howard 박사입니다. 이것은 세션 번호 15, 여호수아 10장, 남부 캠페인입니다.